

시

복숭아

임주아

당신이 내 처음이야 말하던 젊은 아빠 입가엔 수염이 복숭아솜처럼 얇게 돌아 나 있었겠지 엄마는 겁도 없이 복숭아를 앙물했겠지 언제부터 뺏속에 단물이 툭툭 차 오르고 있었는지 모르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당신이 매일 쓰다듬은 곡선이 나였는지

그해 여름 홍수 난 집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두 알 막 태어난 아기 얼굴 같은, 산모가 위험하니 그냥 낳으세요, 그냥 나온 나는 태어나 백도복숭아처럼 물결한 젖을 물고 눈을 깜빡거렸겠지 늙혀두면 하루종일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말했지

깨어나면 조금은 소란스러운 심 증집 어느 날 무선전화기가 날아다니는 종종 창문 밖으로 식탁 의자가 떨어지는 떨어진 의자가 일층 정원을 박살내는 동네방네 돌아다닌 소문이 햇볕을 쬐는 대낮 바람결에 모빌은 돌아가지 아이 좋아, 동해안 한 바퀴 시원하게 돌고 온 아빠 곰 같은 등 뒤에 서너해 살다간 여자 풋복숭아 자국 돌아나는 눈두덩이 엄마 어디 가

짓이겨진 과육을 툭툭 흘리면서 나는 천천히 무릎을 쓰다듬지 몽게몽게 피어나는 욕탕에서 오랜만에 만난 당신의 살을 만지지 복숭아껍질 따가운 살갗, 엉덩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기분이야 붉은 속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온탕과 냉탕 사이에서 애인과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 놀지 더 이상 처음이 아닌 우리에게 또 한 철이

동화 부문 당선 소감

미래의 내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



김경락

▲2010년 국민대학교원 문예창작과 졸업 ▲IT 회사 근무

오랫동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어떤 것이 나의 길인지, 그 끝없는 고민의 결과가 제겐 문학으로 귀결되었던 것 같다. 직장생활과 글쓰기를 병행하며 과연 잘하고 있는지 고민했다. 삶에 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해 진 건 고민하는 나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과 살아가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이었다. 퇴근길에 당선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는 기자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돌기의 가솔'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며, 내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 작품을 읽어주겠다. 동화작가로 선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쓰겠다. 오늘 또 내 삶에 하나의 지표를 세운다. 문학을 가르쳐주신 국민대 문창과 교수님들과 글모임 '종각역 글벗들' 문우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기쁨을 전한다. 돌기처럼 언제나 고민하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작가가 되겠다.



동화 부문 심사평

차분한 호흡, 전개는 흥미로웠다



김옥애

▲1975년 광주일보·1979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동화 당선 ▲대표작 '이상한 안경' '별이 된 도깨비누나' 등 ▲한국 아동문학상·광일문학상

예시를 거쳐 온 열다섯 편의 동화를 읽었다. 어떤 게 좋은 동화일까? 우선 쉽게 읽히고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쉽고 간결하면서 어린이가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은 동화일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지 묘사는 없는가? 서사 구조가 탄탄하게 구성되었는가? 상황 설정이나 문제 제기가 상투적이지 않은가? 어린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여러 관점들을 의식하면서 작품들을 읽었다. 그중에서 최종 세편을 골라 다시 읽었다. '만복이 삼촌'은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럽고, 재미있다. 동심을 지닌 구두수선 가게의 만복이 삼촌과 미용실을 개업한 누나의 사랑 이야기를 아이의 눈을 통해 그려냈다. 하지만 주 독자인 어린이의 눈높

이에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아빠의 머리카락'은 항암치료를 받아 머리가 빠진 아빠와 딸의 이야기이다. 문어머리가 된 아빠의 머리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상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나 외모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제에 아쉬움이 남았다. '돌기의 가솔'은 인간의 삶이 투영된 순수 판타지 동화다. 봄날 동물원 귀퉁이에 살고 있는 비둘기 가족의 삼대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먹고 사는 일보다 세상구경을 중요하게 여긴 비둘기에게 이견 좋고, 이견 나쁘다는 식의 단정이 없다. 아빠는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음모작 중에서 작가의 문체가 가장 차분하고, 흥미롭게 읽혀진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시 부문 당선 소감

아빠께 바친다, 슬프지 않게 열심히 쓰겠다



임주아

▲1988년 경북 포항 출생 ▲2012년 우석대 문예창작과 졸업

꿈을 꾸었다. 바다 한가운데서였다. 그는 물에 빠져 오래 나오지 못한 사람처럼 몸이 퉁퉁 불어있었다. 왼쪽 이마는 어디 심하게 부딪쳤는지 볼록 튀어나와 시퍼랬고, 손가락은 마디마다 흰 뼈가 드러나 있었다. 물 위에 상반신만 내놓은 채 아무 미동도 없는 그가 가만히 내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내가 너를 구했다. 핏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그의 손가락에 떨어졌다. 그를 구하고 싶었다. 얼마 전 수첩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우리의 평생은 잘못된 자리에 놓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옮겨놓는 데 쓰일 것이다. 다시 고쳐 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고.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내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다 자랐으므로 그의 옆엔 늘 내가 없었으므로. 하지만 그가 이곳에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 떠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문장으로 복원해보려 애쓸 때, 다 쓴 베개에 울적 손질 때, 등과 벽이 맞대어 질 때, 겨우 생각나지 않을 때, 문득 아버지는 꿈에 나타날 것이다. 살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시를 내린다. 슬프지 않도록 열심히 쓰겠다.

시 부문 심사평

혼잣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흡입력 뛰어난



안도현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서울가는 전봉준' 당선 ▲대표작 '외롭고 높고 쓸쓸한' '연어' 등 ▲소설시문학상·운동주상

공허하고 관념적인 진술 대신에 구체적인 삶에 언어를 밀착시키는 시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삶의 문제가 절박하다는 인식이 시를 쓰는 이들 사이에 공감을 얻고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의 문제로부터 멀찍이 달아나 몽환의 숲을 헤매던 언어가 조금씩 재정비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다. 당선작으로 고른 임주아 씨의 '복숭아'는 가족사의 한 단면을 명징하게 부조해 보여주었고 있다. 시적 대상에 자신의 체험을 비벼 넣는 솜씨가 만만치 않고, 독자를 시의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다. 요즘 유행하는 시들이 혼잣말을 그저 혼자 중얼거리고 마는데 이 시는 혼잣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시적 흡입력이 각별하다. 축하한다. 끝까지 겨룬 응모작 중에 이인서 씨의 '말이 달아났다'는 "돌아갈 수 없다면 그곳이 낙원인지 모르다"는 첫 문장이 매력적이다. 기억에서 끌어올린 소재를 시간의 경과와 중첩해서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매우 안정된 호흡이 오히려 불안스럽다는 게 흠이었다. 임정숙 씨의 '외인흡입금지'는 인적 끊어진 '빈집'을 자신의 호흡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다. 묘사도 적절하다. 다만 시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나'의 역할이 시에서 지나치게 미미하게 다뤄졌다는 게 불만이다. 이삼례 씨의 '미용실 앞면과 뒷면'은 서로 닮아가는 것이다'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미용실 벽면의 거울을 소재로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시다. 때로 돌출된 이미지가 시 속에 용해되지 못하고 돌부리처럼 걸릴 때가 있다. 완벽한 퇴고에 소홀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밖에 이동한, 김형미, 허승호, 박미경 씨의 작품들을 유심히 읽었다. 한겨울만 보면 모두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다. 습작시절에는 무엇보다 온몸으로 긴장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